

# 강진군, 샤인머스켓 포도 조기수확 시작

### 일명 '망고포도'...30농가 10.2ha 면적서 재배 홍수출하 대비해 주산지보다 보름 이상 빨라

강진군은 껍질째 먹는 청포도인 샤인머스켓 포도 수확을 시작했다.

샤인머스켓 포도는 군에서 소득과수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품종으로 일명 '망고포도'로 불리며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가 높은 과일이다.

군은 3년 전부터 미래 유망과수로 인식하고 농업인 지원을 시작해 올해까지 30농가, 10.2ha의 면적에서 재배하고 있다.

전남도 주관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해부터 매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기수확, 재해예방, 기온관리, 노동력 절감, 수출 등에 연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공급량으로 단가 하락이 예상돼 서남해안 지역 기후를 활용한 조기 수확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군은 모든 포도 농업인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 두꺼운 보온커튼을 지원해 주산지보다 최소 보름 이상 빠른 수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병영면 농장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수확을 시작해 하루 300kg 정도의 포도를 출하하고 있으며 점차 관내 수확 농가가 늘어나 이달 말쯤에 본격 수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연구회를 조직해 농업인들의 정보교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국내 이론 전문가와 현장전문가들을 수시로 초빙해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단가하락을 대비해 당도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명품화 전략을 수립해 농업인들과 함께 고품질 생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확현장을 찾은 강진원 군수는 "샤인머스켓 포도가 현재 농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면적 확대에 따른 단가 하락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강진 샤인

머스켓 포도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장흥군, 통합의료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수료식 헬스케어 산업 전문가 25명 배출

장흥군은 지난 13일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에서 2022년 통합의료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헬스케어 산업의 확산에 따른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통합의학 산업과 연계된 인력을 양성하고자 장흥통합의료병원에 위탁하여 장흥군민 중 통합의료에 관심이 있는 신청자 25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1일에 개강하여 10주간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일자리 공모사업에 힐링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공모하여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통합의학 인력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수료생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동기 부여와 자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 건강한 장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 완도 해양치유 체험존 5000여명 참여 성황

### 노르딕 워킹·싱잉볼 명상·해변 액서사이즈 등 체험

완도군은 16일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운영한 해양치유 체험존에 50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22일부터 8월15일까지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진행한 해양치유 체험존에 주민과 피서객 등 500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해양치유 체험존은 '여름, 모래와 휴식'이라는 테마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오전에는 노르딕워킹과 싱잉볼 명상, 차(茶) 명상, 필라테스, 해변 액서사이즈 등에 이어 '나만의 천연 비누'를 만드는 시간도

가졌다. 오후에는 해조류 아이 패치와 노화염전 머드, 고급 유자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테라피 제품을 테스트했다. 프로그램 중간에 시원한 비파와 활질 냉차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해양치유 체험존에는 타 지역 방송사까지 찾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체험존 참가자 A씨는 "이런 시간에 싱잉볼과 차를 음미하며 명상을 하니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며 "해변에서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어 제대로 힐링했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해남군 "가을배추 농작물재해보험 신청하세요"

가을배추 재해품목 신규지정...지역농협 보험 가입 가능

해남군은 가을배추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오늘(16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보험가입을 실시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며, 현재 6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농립수산식품부는 8월초 신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가을배추를 지정, 해남군을 비롯한 3개 지역에서 재해보험 가입을 실시하고 있다.

재해보험은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국·군비율 9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해남군은 전국 재배면적의 11.7%, 941.8ha를 차지하는 가을배추 주산지이다. 배추 품목 중 고랭지 배추와 월동배추는 지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으로 군은 가장 재배면적이 넓은 가을배추 품목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헌혈로 사랑을 나눕니다"

### 진도군농협 임직원, 2차 사랑의 헌혈 캠페인

농협진도군지부(지부장 주명규)와 서진도농협(조합장 한옥식), 선진농협(조합장 정해민), 진도농협(조합장 노춘식) 임직원 및 조합원은 지난 16일 농협진도군지부 주차장에서 2022년 2차 단체헌혈을 실시하였다.

이 날 헌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진행되었으며,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함께 관내 직원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차례로 헌혈차량으로 들어가 간단한 문진을 한 후 사랑 나눔을 실천하였다.

농협중앙회는 헌혈자 감소로 인해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헌혈로 함께하는 온기 나눔 RUN』 캠페인을 3월부터 전개하고 있으며, 진도군농협 임직원도 지난 4월5일 1차 단체헌혈 이후 두 번째 단체헌혈을 진행하여 사랑 나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진도군지부 주명규 지부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이 재유행하고 있는 만큼 혈액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헌혈이 가능한 농협 직원들도 상시적으로 헌혈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강진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식 요리교실' 개강

지난 9일에 강진군가족센터는 강진 관내 결혼이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한식요리교실인 '다양한 엄마의 수라간'이 문을 열었다.

'다양한 엄마의 수라간'이라는 이름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태국 출신 결혼이민여성이 참가한 이번 한식 요리교실은 총 9회기로 8월 9일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진군여성회관 조리실에서 진행된다.

한식요리교실을 수강 중인 어영몽황 씨(베트남)는 "한국요리를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좋

고, 많이 배워서 가족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나누었다.

윤정선 강진군가족센터장은 "다양한 문화 존중의 첫걸음으로 한식요리를 통해 한국의 전통 식(食)문화에 보다 쉽게 접근해 가족공동체의 건강한 밥상문화 정착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서 나눔의 가치실현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한 걸음 더 자신있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전라남도